

‘세상을 자애로 감싸안는 일’ 여성만이 할 수 있다

본각 스님



소담스럽게 핀 꽃과 나무들을 지나 들어온 북 카페는 따스한 봄 햇살이 안락함을 더하고 있었다. 이호신 화백의 천불만다라로 장식된 벽면 덕에 북카페는 갤러리와 카페를 겸한 갤러리 카페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고양시 용두동 금류사는 ‘현대적’이라는 수식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사찰이었다. 1층은 북카페로, 2층은 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엄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금류사 주지 본각(本覺) 스님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곳곳을 친절히 설명했다. 두루두루 손이 안 간 곳이 없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에서는 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생겨났다.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 연구원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전나무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국장이 4월 29일 본각 스님을 찾았다.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교수, 비구니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 비구니를 대표하는 본각 스님과 2시간 가량 대화가 이어졌다.

글=이상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로서 동국대, 일본 동경의 릿소대와 고마자오 대 등에서 공부하고, 미국버클리에는 각 종교연합 대학원(G.T.U.)에서 객원교수(1995~1996)로 계시는 등 일찍이 공부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당시 비구니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이었지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것,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 원동력이다. 18살 되던 해 운문사에서 초매지로 쓰인 한글전용 신문을 읽게 됐다. 한글로 쓰인 세상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다. 그 때, 세상에서는 한글을 쓰는데 스님들은 한문을 보는 것이 마치 세상을 등진 일이라고 생각됐고, 바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3살 때부터 산중 생활을 하다 18세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너무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1982년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내가 있는 세상이 좁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벗어나 있으니 한국불교가 보였다.

제는 경전만이 불교의 교과서가 아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교과서이고 수십만 가족을 살처분한 구제역, 저축은행들의 탐욕스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업에 기인함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과서인 것이다.

앞으로 최고의 지성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개별적으로 꿰어서 보지 않고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의 현상은 반드시 관계 지어져 있다. 가족은 조상이라는 전체 생명 속에 있고, 나의 존재는 모든 이의 보살핌과 노동의 대가로 관계 지어져 있다. 웃을 입고 편리한 차를 운행하는 것조차도 모든 생명의 노동과 관계 지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범용여시(法應如是), 우주의 기운은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강독을 무너뜨리고 여름을 지나치게 시원하게 보내려는 욕망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탐욕이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여 더욱 혼탁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널리 바라보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익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선은 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 여성불교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해결될 일이다.”

한국 비구니 교단이 오늘날까지 유지, 발전은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지만, 여성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단으로서 규범과 절차를 1700년 간 지켜온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현재 대만 비구니들은 1년에 수차례 중국으로 가서 불교 강화를 하면서 중국대륙 승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본토에 여성 출가자는 많은데 체계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지도할 기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대만스님들의 불교교육은 강자에 불과하며 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걱정의 말은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불교도 국제화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참신한 출가자를 한국 승가에서 받아들여 우리의 전통 예법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불교세계화와 출가자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불교의 특성을 살려 세계에 비구니를 지원하되 종단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줄어드는 여성 출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행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년교찰에 소규모 한글 학당을 만들고, 참신한 외국인인을 받아들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불교를 매년 20~40명 정도에게 전하는 방법이다. 각 사찰이 분담해서 그들이 한국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글로벌 시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그들을 한국에 초청해하고 잘 교육된 외국인 행자는 수계를 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보내 한국 불교를 전하면 된다.”

죄가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업설(業說)이나, 비구니 스님이 법상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 하고, 비구니 팔경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주체적인 여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경계는 우리 스스로 사장(死藏)해 버리면 된다. 경율은 삼장의 기록은 부처님 열반 300여 년 이후의 기록들로 남성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라는 학자의 주장이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모두 출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으로 출가하도록 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지금도 부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팔경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부처도 불발도 모르는 사람이다. 기록은 기록으로 존중하지만 기록 이전에 부처님 마음을 읽는 불자가 돼야 한다. 율장을 손 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오히려 대담

최고의 지성은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를 아는 것 여성부터 불평등의식 깨어나와 스스로 당당해져야 원전·구제역·저축은행... 업 가르치는 불교 교과서

부처님의 여래심호(如來十號)중에 세간해(世間解)가 있다. 세간의 모든 일과 그 이치를 모두 잘 안다는 의미의 말이다.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현상계의 생하고 멸하고 변천하는 모습과 원리를 잘 알아서, 고통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부처님은 세간의 고통과 바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세간해라고 하지 않는가. 승가는 세상을 내다보고 중생을 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승가는 세간의 고통을 모르고 중생의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새삼 가슴에 사무치고 보현의 행원력이 갈구(渴求)되는 이유이다.”

한국비구니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7년간 정리했습니다. 비구니의 위상 정립에 남다른 뜻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비구니연구소 개소는 우연한 계기였다. 1999년 매일신문에서 <근세100년 여성종교지도자 명감>을 제작하면서 각 종교계에 자료를 요청했다.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는 충분한 자료가 있던데 불교만 자료가 없었다. 비구니 스님에 대한 자료라고는 생년월일, 본명, 입산과 출가, 득도일 정도에 불과했다. 근세 100년 여성종교지도자 자료에서 비구니가 빠지면 근세 100년사에 불교여성지도자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중앙승가대학교 비구니 스님들의 기속사인 수행관 관장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수행관에 사는 97학번 스님들과 자료 조사에 불이 붙었다. 모두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연구를 개소했다. 503명 비구니 수행 담목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은 7년에 걸쳐 진행됐다.

비구니연구소는 아직 정식연구소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중앙승가대 내에 공간은 있지만 거의 비구니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개인 사무로 하고 있는 정도다. 정식연구소가 아니어서 연구비 등에서 불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이 보인다. 물질은 넘쳐흐르고 생활은 많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자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잠으로 행복하고, 모두 함께 미래에도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다. 근본은 인간이 추구하는 편리함과 탐욕의 소산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면 최고의 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업이라고 한다. 일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전기 에너지에 탐닉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 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욕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따뜻하게 배출되기때문에목욕(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제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도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반신욕발열제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명종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검색작: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삼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은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EXCEL SERVICE COMPANY KNOWLEDGE 2011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주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후원: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 평등에 있어 남성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운 스님, 성철 스님은 비구니를 보호했다. 94년 개혁하면서 비구니의 입지조건이 오히려 각박해진 부분도 있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길을 걷는 수행자로서 담당하게 일할 시기다. 1950~1960년대에는 비구니의 수행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큰스님들의 보호가 필요했다. 이제는 비구·비구니의 교육과 수행이 평등해진 만큼 일반적으로 비구스님들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비구니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

비구니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구니와 여성은 자신의 몫을 과감하게 책임져 나가야 한다.

우선 여성이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아 낙태는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만, 이 시대에 여성이 여자 아이라는 이유로 수만 명이 낙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품은 아이가 여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여성의 불평등 의식은 뿌리가 깊다.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성 스스로 침묵을 깨야 한다.

또 하나 미혼모의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미혼모가 아이로 인해 갖게 되는 무거운 짐들을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가능케 해야 한다. 출가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세상을 자애로 감싸 안는 일이다. 불교여성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힘을 합쳐서 자비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불교여성들이 앞장서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회는 잘못에 대한 기도가 아니다. 너무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할 때도 참회밖에 없다. 피눈물로 하소연하는 기도도 참회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내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도 “부처님께 괴로움으로부터 길을 주십시오”라고 깊이 참회기도를 올려 보자.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를 살펴볼 때 뜻밖의 힘이 난다. 참회기도는 청정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은 계속 죄업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을 때 지도교수님과 갈등이 4년 간 이어졌다. 자기 학생이지만 자기 학생 같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도교수와는 통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다. 졸업논문은 앞두고는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할 정도였다. 그때 관세음보살과 눈을 마주친 채 염주를 돌려가며 만나절을 지도교수님을 미워하는 기도를 했다. 평소 무시당한 자존심 상한 일이며 등등, 부처님 앞에서 지도교수의 욕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뭐하고 있는가. 부처님 앞에서 지도교수님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염주를 돌리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습게 여겨졌다.

‘부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논문 잘 써서 통과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게 됐다. 6개월 만에 교수님을 담당하게 찾아가 졸업 논문을 쓰겠다고 했다. 이후 난 적조 스님(스님의 속가 둘째 언니)과 교



본각 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왼쪽부터) 전나미 교수, 한주영 사무국장, 김영란 소장, 옥복연 소장, 이희숙 강사

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

앞으로 누군가의 욕은 다른데 가서 하지 말고, 부처님 눈을 맞춰가며 욕할 것을 권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건 아닌데’라며 자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때 이후로 내 마음 속에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대처할 뿐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성내고 원망하는 것이라는 이해심이 앞서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원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상대가 비우지 않아도 내가 먼저 비우는 것이 참회다. 참회는 일방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이 아니다. 죄에는 종자가 없다. 종자도 없는 죄업이나를 고통해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깊이 자신을 반성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참회기도는 곧 자신을 반성해 보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을 맑히는 참회기도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본각 스님은...

본각 스님 6남매는 모두 출가를 했다.

가족의 출가는 1952년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로부터 시작됐다. 본각 스님은 부친이 돌아가신 해 경남 합천군 쌍백면에서 태어났다. 스님이 되신 친척 고모님(삼인 스님)의 권유로 아버지의 49재를 지내게 됐다. 가족은 당시 안경사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큰스님을 찾아가 부친의 천도를 부탁했다. 이렇게 불교와 인연은 시작됐다. 큰 오빠인 천재 스님은 49재를 마치고마자 성철 스님의 만재자로 출가를 한다.

이어 큰 언니(혜근 스님)가 출가를 했다. 어머니는 큰 아들과 딸이 출가를 하자 당신도 출가를 결심한다. 남은 자식들에게 출가의 뜻을 물었을 때 5자매 모두 출가의 뜻을 밝히게 된다. 어머니는 1955년 태백산 흥제사 보살계 산림에서 자운 율사스님에게 출가를 앞두고 ‘성종’이라는 법명까지 받았으나 병을 얻어 출가는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둘째 언니(적조), 셋째 언니(보명), 둘째 오빠(삼소)까지 식구 모두 출가를 했다.

본각 스님은 3살 때에 석남사 인홍 스님의 권속 관계인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六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성철, 일타(지족암), 범명을 지어 준 전강, 해암(수덕사), 춘성, 석남사 인홍, 봉녕사 묘엄 등 큰 스승을 많이 만났다.

석남사와 인문사 강원을 거쳐 1972년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해 서양 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재출가’의 초발심으로 봉녕사 강원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중강 소임을 맡았다.

1982년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릿쇼(立正)대 석사, 동경 고마자와(駒澤)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9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1년부터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G.T.U(종교연합대학원)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설해 한국비구니 승단의 자료와 활동상황을 정리하는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어내는 등 불교 대중화와 포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진흥원 제6회 대원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불교방송 경전공부, 자비의전파와 수행상담 진행, 주말법문법사, 대한불교조계종 11, 12, 13대 중앙총회의원,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역임, 문화관광부 전통사찰지정 자문위원 역임, 불교학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현) - 신문기사로 본 한국 비구니 자료집 등 19책 발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및 도서관장(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현), 화엄장학회 회장(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현), 승가교육진흥위원회(현), 포교원 연구위원(현)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천불 만다라 봉안도량’ 금문사를 창건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선학과 교수

문자를 쓰지 않는다

책의 형태는 다양하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그 다양함은 한 형태의 모습일 뿐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지는 못한다. 책은 마침내 독자가 펼치는 순간 정형(定形)에서 부정형(不定形)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정형 보다 부정형 하면 불안정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정형 보다 훨씬 값진 모양이 부정형이다. 생각을 깊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고정된 것은 부패하기 쉽고 곧 퇴보해버리거나 망가지기 일쑤다. 그러나 살아 있는 것의 속성은 아주 다르다.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이 모습인가 하면 어느새 변하여 저 모습이 되기도 한다. 책 또한 독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한낱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책장을 펼치는 순간 독자의 뇌와 눈의 작용은 활발해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환희가 넘쳐나기도 하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기도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책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볼립문자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간간히 주변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 하는 이를 보면 왠지 띄어쓰기 사이가 되고 만다. 여기서 문자란 말이나 음절이란 의미가 있으나 실은 경전이나 논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능가경》의 한역본(漢譯本)에 문자라는 말이 있는데 범어 akshara 를 번역한 말이다. akshara 는 ‘문자’라는 말 뿐만 아니라 ‘소리’, ‘단어’, ‘종교적 고행’, ‘희생’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 대장장 16권 《능가아발타라보경》 권4(p.506中) 가운데 볼립문자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볼립문자(不墮文字)가 있고 혹은 ‘문자를 여이다’는 이문자(離文字)가 있다. 중국 초기 선종사에서 《능가경》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달마는 혜가에 4권 《능가경》을 전수하

자식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듯

진리 전달에 문자한계 드러나

확 바꾸어 놓은 대역사(大力士)가 아닌가 한다.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은 권학문(勸學文)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가난한 사람은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
富者因書貴
貧者因書富
책을 읽어 영화 누리려는 것은 보았지만
只見讀書榮
책을 읽어 실패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不見讀書墜

독서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묘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글을 선에서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만다.

볼립문자라는 말이 그렇다. 볼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教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사구(四句)는 달마 대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아마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걸쳐 쓰이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고 본다.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선원제전집도서》 권상에서 볼 수 있기 때

면서 “내가 중국에 들어온 후 이 경전만큼 불설(佛說)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 어진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혜가여! 그대에게 그 진리의 더욱 심오한 것을 내려주려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전달함에 문자라는 수단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선의 입장이다. 이는 비단 선종에서만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도가 또한 이를 언어로써 표현한다거나 서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하지 않고(知者不言), 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사람은 도를 모른다(言者不知)고 말하지 않았던가. 성리학에서도 칠분도설(七分度說)을 들어 언어나 문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진리나 실재물을 표현함에 7할은 언어나 혹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할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말이나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현관을 나서서 자식을 보는 눈길과 손길에 부모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수량으로 사랑의 척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말이 어눌해도 무방하다. 손길이 등이나 어깨에 미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 아들은 오늘도 책을 펼쳐 부정형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법정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배례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밀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흥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허물며 내 것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정찬주의 마음기행

